

### 교회소식 (ANNOUNCEMENTS)

세광 가족 모두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교육부 광고

Sight and Sound Trip for Sunday School and Youth Group

일시: 3 월 25 일 (토)

입장료: Adult \$85

Children \$50

Kids age(3-12) \$31

- PCA(미국장로교) 한인동북노회 정기노회를 우리교회에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3 월 14 일(화) 오전 10 - 오후 5 시에 세광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 춘계 부흥사경회

일시: 3 월 31 일(금) - 4 월 2 일(주)

강사: 정민철 목사(뉴하트선교교회)

- Daylight Saving Time 은 다음 주(12 일) 2AM 에 시작됩니다.

2017 년 3 월 안내: 이항복 집사

다음 주 기도: 최성국 집사/시 121 편

이번 주 친교: 서현숙/신미라 권사

다음 주 친교: 백혜옥/황인선 사모

### 예배안내

- 주일예배: 오후 12 시 본당
- 유년/중고등부: 오후 12 시 1 층 예배실
- 금요기도회: 오후 8 시 본당
- 중고등부 성경공부: 오후 8 시 1 층 예배실
- 토요 새벽기도: 오전 6 시 본당
- 구역예배: 구역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 5:14)

# 뉴욕세광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담임: 이민영 목사 914.874.3606(C) mylee4x@gmail.com

예배/지휘 전도사: 이상민/중고등부 전도사:Edwin Kim

유년부 간사: 안정자/만주자: 윤미경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www.nysekwang.org

2017년 표어

“하나님의 뜻을 다(The Whole Counsel of God)” (행 20:27)

### 주일에배순서

2017년 3월 5일 인도: 이민영 목사

- \*입례송영 (Opening Hymn) 21 장(통 21 장) 다함께  
“다 찬양하여라”
- \*경배와 찬양 (Worship and Praise) 다함께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 \* 찬송 (Hymn) 28 장(통 28 장) 다함께  
“복의 근원 강림하사”
- 대표기도(Invocation) 시(Psalms) 131 편 최경자 집사
- 찬양(Choir) “비치소서” 세광찬양대
- 봉헌기도 인도자
- 성경봉독(Scripture Reading) 갈(Gal.) 2:1-10 인도자
- 설교 (Sermon) “믿음의 벼” 이민영 목사
- \*찬송 (Hymn) 369 장(통 487 장) 다함께  
“죄 짐 맡은 우리 구주”
- \*축도(Benediction) 이민영 목사
-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감동이 있는 예배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들을 위하여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순돈호(슬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장영호(GP 본부), 이정석(WEC 본부),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필리핀)

2017. 2. 26. 주일설교 요약

믿음의 이력 (갈 1:11-24)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함께 엮어져 써내려가는 한 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곳에서 2 장 끝까지는 바울의 믿음의 이력 이야기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믿기 전의 상태와 믿게 된 경위, 믿은 후의 변화라는 전형적인 간증문의 형식을 통해 바울 신앙 인생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바울은 당대의 엘리트였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 당시 최고의 스승 밑에서 수학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과 율법에 대한 열정이 뛰어났고 젊은 나이에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 중요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열심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성공의 가도를 달렸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이었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뒷받침으로 거역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고 어떻게든 자기에게로 이끄시려고 바울을 만나주셨습니다. 바울은 신자들을 핍박하러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가 온 힘을 다해 확신을 가지고 하던 일이 주님을 핍박하던 일이고, 증오하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기반이 무너졌을 겁니다. 땅에 엎드려져 아무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도 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바울의 인생 가운데에서 주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혼자 설 수 없는 자리가 있습니다. 어쩌면 거기서 주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비로소 교만을 벗고 늘 함께 하셨던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헛된 달리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귀하고 의미있는 이야기로 쓰여져 갑니다.

바울이 주님을 거역하고 핍박할 때에도 주님께서 선하신 뜻으로 바울을 택하셨습니다.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세상에 나타나는 도구로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변할 수 없는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 인생의 이유와 의미를 찾습니다. 내가 높아지고 나를 실현하고 나의 뜻을 이루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놀라운 일들 가운데 부르심을 받습니다. 만유의 주재 하나님, 그분의 영원하신 사랑의 증인이요 도구로 우리 인생이 사용됩니다.

[우리에게 자녀와 후손을 맡기신 것은 그들을 향하신 주님의 선하신 뜻과 그 인생의 존귀함과 의미를 찾도록, 그래서 그 인생이 헛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쓰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도록 돕고 섬기라는 뜻입니다.]

믿고 난 후 바울은 변화되었습니다. 더이상 당대의 권위자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자기 인생의 의미를 더해 줄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는 성취가 자기의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택하셨고 맡기셨기에 그 일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인생을 보며 놀라와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인생의 비극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만족과 행복을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에서,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인생의 보람과 의미를 내 일의 성공과 성취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만 느낄 수 있는 인생의 존귀함을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서 얻으려 하는 데 있습니다. 거기서 좌절과 다툼, 정죄와 자학이 생겨납니다. 오직 은혜로 완전한 구원을 얻는 바울의 복음은 바울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확실하게 역사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의 인생이 존귀해졌습니다. 경쟁과 비교, 교만과 다툼으로만 성공할 수 있었던 바울이 이제는 겸손과 사랑의 사람이 되어 예수님의 향기를 풍깁니다. 이것이 바울의 믿음의 이력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을 얻은 우리의 믿음의 이력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져 갑니다. 우리는 억지로 끌려가는 노새도, 아무 생각 없이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이는 로봇도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여 순종하며 함께 그 이야기를 써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가장 우리답고, 가장 성실하며, 가장 존귀한 주인공이 됩니다.

다음 주일(3/12) 설교: 믿음으로 산다는 것(갈 2:11-21)